49회 신입생 워크샵 의소분 인수인계서

58기 박주현

0. 참고사항

이번 공연의 대본은 Almost Maine이었고 의소분은 한명이었다

1. 의상

의소분이 한명뿐이기에 대부분의 의상은 캐스트들이 구해오게 되었다. 이번 극은 대부분의 옷들이 겨울 평상복이었기에 옷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초여름에 공연을 진행하다보니 원활하게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던 것 같다.

이번 공연의 경우 연출이 직접 캐스트들에게 자신의 옷을 가져오라 했고, 의소분은 의상에 있어서는 대략적인 이미지만 연출팀과 논의할 뿐 많이 관여한 부분이 없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캐스트들과 교류하며 옷이 없다면 그것을 구해주는 식으로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2. 소품

소품의 특성상 구하기 어려운 소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본을 받은 이후부터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구글스프레드시트로 필요한 소품 목록을 만들어서 캐스트, 연출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추천한다. 제작해야 하는 소품이나 사야 하는 소품의 경우 기획과도 상의를 해서 진행해야하므로 되도록 소품 부분은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길 바란다. 이번 공연의 경우는 일부 구하기 어렵거나 제작에 어려움이 따르는 소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도구(벤치 등)의 경우는 무대팀과도 교류가 필요하다.

소품을 제작하거나 수리하는데 유용한 도구는 톱, 바느질도구, 타카, 페인트 등이 있다.

-스케이트:제일 애를 먹었던 소품이다. 구하고 난 이후에도 날을 보호하는 덮개가 없어 다른 스탭들과 함께 만들어야 했다.

-다리미판:캐스트의 연기가 수월하도록 원래 있는 다리미판의 넓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했다.

-빨간 가방:부직포를 사서 제작했던 소품이다. 빨간 가방의 경우 원래 지난 공연에 만들어둔 소품이 있다고 들었으나 사라져서 새로 제작해야 했다.

-맥주 캔:원래 있던 캔이 무대 설치를 위해 동방을 정리하는 도중 분실되어 새로 사야 했다. 이처럼 잃어버린 소품은 예산에 부담이 가게 하므로 해당 캐스트에게 넘겨 관리하도록 하거나 의소분이 따로 관리를 해야 한다.

-유의할 점:소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최대한 빠르게 제작하거나 구해야 한다!

3. 분장

의소분이 한명이라서 제일 곤란했던 부분이다. 결국 여자 캐스트들과 이전 공연의 의소분 담당이 오셔서 직접 분장을 해야 했다. 본인은 화장경험이 거의 전무하기에 도울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이번 공연의 분장은 세지 않게, 화장에 쉐딩을 하는 정도로만 하였다. 분장에서의 아쉬운 점은 분장 키트가 매우 오래되어 쓸 수 있는 물품이 거의 없었기에 분장을 도와준 이들의 개인 물품으로 분장을 해야 했다는 점이다.

남자 캐스트들의 경우 화장 경험이 없어 클렌징하는 방법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에 그 부분을 도와주고 알려주면 좋을 듯 하다.

4. 마무리

다른 스탭 분야도 그렇겠지만 의소분은 특히 캐스트들과의 교류가 절실하다. 의상과 소품을 구해 끊임없이 연출과 캐스트들과 함께 상의하고 컨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소분-캐스트 톡이 필요하다.

스탭회의에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스탭 회의 외에도 컨펌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기에 다른 스탭이나 캐스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소품의 경우는 직접 캐스트들이 연습때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여 수정을 거쳐야 하기에 캐스트들의 연습을 보는 것이 좋다.